

傷寒論의 學術淵源을 통한 傷寒方의 平衡觀 고찰

김지형* · 박선동*

Study on the viewpoint of the balance(平衡觀) on the 'Sanghan prescription'(傷寒方) throughout the academic sources of 'Sang Han Lon'

Ji-hyung Kim * · Sun-Dong Park*

Dept. of Oriental Prescrip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 Guk Univ.

ABSTRACT

'Sang Han Lon' became the sources for treatment and prescription in the Oriental medicine. After that, for some 1800 years the various writings for studying in many ways more than 1000 books which many old sages really intended to inquire into and study the value of books. It is considered that it is the result which the old sages tried to grope for many-sided directions in order to understand 'Sang Han Lon'. In this study, I tried to inquire into prescription and its relevant medicinal substances, that is to say, the crystalization of the physiology, pathology and treating method on the basis of the academic sources of his thoughts. The method to approach is "from what basis of thought system was 'Sang Han Lon' derived first of all?" Secondly, how was the thought system, which became the basis of 'Sang Han Lon', applied to concretely? I studied on the basis of the above important two problems. It is well known to everybody that 'Sang Han Lon' succeeded to the tradition of Naekyung(內經) as well as Cwuyek(周易, Chinese classic on divination). Besides, I inquired into and arrived at conclusion as follows that how the viewpoint on the balance(平衡觀), which was one of the common point between Cwuyek(周易) and medical science in case of the 'Sanghan prescription'(傷寒方), was applied to concretely.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1. In naming, it is considered that from the same interconnection which the common point with Cwuyek(周易) was the same as obtaining the imigation(取象), the imagination was obtained and was named.

2. In case of being concerned in the gastro-intestinal track, namely, the core of the balance and harmony with the balance and harmony being emphasized, ‘理中’(It implies ‘taking care of gasstro-intestinal track’)” and ‘建中’(It implies ‘establishing of gastro-intestinal track’), that is to say, ‘中’(It implies ‘taking care of’ & ‘establishing of gastro-intestinal track’) was emphasized much more.

3. In case of treatment taking advantage of three kinds of medicine in draught, powder and pills in the prescription, while treating during adjusting the slowness and fastness, I maintained the harmony not to damage the righteousness(正氣).

4. In case of the prescription, when exhaling(發散), astringing(收斂), loosing bowels, protecting the gastro-intestinal track and vomiting, he used the medicinal substances in order to protect the gastro-intestinal track and treated not to damage the righteousness.

5. Especially, in case of the prescription in order to adjust the negative and positive principle of inside-outside(表裏陰陽), he composed of medicinal substances relevant to hot, cold, spicy and sour(寒熱辛酸) in conformity with the prescription and I paid much more attention to the one-sided treatment. Considering the various prescriptions, it is regarded that the adjusting prescription is kept its balance.

6. In the way of processing the medicinal substances in order to change effect of medicine in conformity with the reenactment, he tried to plan the balance of ‘一升一降’ with the decrease of RHEI RADIX ET RHIZOMA(大黃) and increase of wine.

7. In boiling the medicine, he boiled the composed medicine in the time sequence for the purpose of adjusting the slowness and fastness and adapted to harmony of the negative and positive principle(陰陽調和) on the essence function(體峻用純).

8. In taking medicine, he tried to reduce the time of taking the medicine in case of being boiled slowly and tried to increase the dosage and eventually he planned the balance of one time slowness and one time fastness.

As I inquired into the above result, a few steps for protecting method to boil the relevant medicinal substances, how to take the medicine and how to process the composed medicinal substances in order to change the effect of medicine can make the human body, which the disease penetrate into, go forward to the righteousness(正氣) and what is much beter, it is considered that this protecting method can be a carefully considerable one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eousness and can subdue the disease, not to damage the gastro-intestinal track and there can exist the viewpoint of balance(平衡觀) on its core.

I. 緒 論

II. 接近 方法

韓醫學에 있어 治法方藥의 祖宗이 되어 내러오는 傷寒論의 저자는 東漢時 南陽郡 사람이며 대략 2C 初에 태어났다고 推定되는. 張機의 所作이다. 그는 漢代 三百餘年의 臨床實踐經驗을 總結하여, 무엇보다도 事實에 입각한 充實한 記錄으로 後世에 尊敬받는 醫聖으로써 韓醫學의 辨證論治에 관한 體系를 初步的으로 形成시켰다.¹⁾ 以後 藥 1700 餘年동안 1,000 餘卷 以上の 研究書가 나올 정도로 價値를 探究하고자 하는 이가 많았다.²⁾ 그들이 택한 傷寒論의 接近方法에 따라 諸書를 分類해 보면 原文을 記錄한 것, 註釋書, 方論, 歌括類 등³⁾의 多樣한 種類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곧 先賢들이 傷寒論을 理解하기 위한 多角의인 方向 摸索의 結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本 論文에서는 生理, 病理, 治法의 結晶인 方藥을 그의 學術的 思想의 淵源을 中心으로 考察하였다. 接近 方法으로는,

첫째, 傷寒論은 어떤 思惟體系를 根幹으로 誕生하였는가?

둘째, 傷寒論의 바탕이 된 思惟體系는 어떻게 具體的으로 適用되었는가? 하는 問題를 여러 文獻을 比較, 檢討하는 가운데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그 結果를 發表하는 바이다.

1. 傷寒論은 어떤 思惟體系를 根幹으로 誕生하였는가?

仲景先生의 傷寒論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提起한 問題가 가장 먼저 考慮 되어야 함에는 疑心의 여지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大部分의 文獻⁴⁾에서는 傷寒論의 淵源을 序文中 “... 勤求古訓 博採衆方 撰用素問九卷八十一難陰陽大論 ...”⁵⁾을 引用하여 內經과 몇몇 서적과의 關係를 直接的으로 說明하고 있어 思惟體系의 根幹에 內經의 存在를 否認할 수 없다. 그 淵源에 있어 重點的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傷寒論 理論의 基礎는 三陰三陽 六經辨證이다. 病變을 三陰三陽으로 區分하여 논한 것은 仲景의 獨創의인 見解이며, 이는 비참한 時代狀況 속에서 傷寒을 治療하고, 그 方法을 摸索하는 가운데서 起源한 것으로 생각된다.⁶⁾

結論的으로 이야기 하자면, 傷寒論의 理論的 根幹이 된 六經辨證은 仲景先生이 새로이 立法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陰陽理致와 六爻를 논한 易에 뿌리를 둔 內經이 理論의 根幹이 되기 때문이다.⁷⁾ 以上에서 言及한 內容은 아래의 小文段에서 包括的으로는 易과 醫學과의 關係를, 具體的으로는 易과 內經, 易과 傷寒, 內經과 傷寒과의 關係를 통해 이를 밝

1) 北京中醫學院, 中醫各家學說,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9, p.21.
 2) 洪元植 編著,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1984, pp.98-99.
 王琦 主編, 傷寒論研究, 廣東高等教育出版社, 1988, p.68.
 3) 重慶市科學技術協會, 傷寒論手冊, 科學技術文獻出版社重慶分社, 1984, pp.242-274.
 ① 原文類: 傷寒卒病論, 傷寒論正文, 校正傷寒論, 古本傷寒論 等.
 ② 註釋書: 注解傷寒論, 傷寒論條辨, 六經方證中西通解, 傷寒來蘇集, 傷寒論綱目, 傷寒論集註, 傷寒貫珠集 等.
 ③ 方論: 傷寒一百三方發明, 傷寒附翼, 傷寒方翼, 傷寒論類方 等.
 ④ 歌括: 傷寒百證歌, 傷寒百問歌, 傷寒心法大成, 傷寒心法要決, 傷寒眞方歌括 等.
 4) 李浚川·鄭漢明 主編, 醫易會通精義,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312-313.
 鄭學熹, 醫易會通,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92, p.53.
 5) 張仲景, 仲景全書, 大星文化社, 1989, p.20.
 6) 張仲景, 前揭書, pp.20-21.
 7) 鄭學熹, 前揭書, p.53.
 8) 朴贊國, 仲景生涯와 後世傷寒家의 六經辨證에 관한 研究,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1981, p.200.

히고자 한다.

(1) 易과 韓醫學

원래 易이란 것은 難解하고 그 理致가 深遠하여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어떤 學文이든지 그 原理에는 易을 가져온 境遇가 많았다. 즉, 天文·地理·樂律·兵法·韻學·算術 등이 그 예이다. 이것은 易이 옛 聖人の 智慧를 모은 것으로 생각 되었으므로 무엇이든 한 科의 學文을 제창하는 境遇에는 그 背景으로 위와 같이 易을 이끌어 대는 예가 위와 같이 많았는데⁹⁾ 지금 易과 內經을 통해 傷寒論과의 關係를 論함은 그 옛날의 흐름을 단순히 좇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周나라 以前의 易(伏羲의 八卦, 夏殷의 連山, 歸藏易)은 단순히 吉凶만을 판단하는 卜書였으나, 周易에 이르러 그 性質은 變化가 생겼는데 從來와 같이 卜書 등으로 使用됨과 同時에 道德的 意味가 붙여지게 되었다.¹⁰⁾ 周易은 易經과 易傳으로 나뉘어 있다. 그 中 易經은 本經이라고도 하는데, 中國 西周 末年에 나온 古代 自然科學의 性格을 띠는 책으로, 殷나라에서 周나라에 이르는 自然科學·社會·歷史·哲學을 總結集하고 있는 책이며, 哲學과 自然科學을 밀접하게 結合한 위대한 著作이다. 易傳은 春秋時代 末期부터 戰國時代

中期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는 易經을 註釋하여 發展시킨 것으로, 春秋時代 以前의 哲學·社會科學·自然科學을 集大成한 것이다. 易經과 易傳을 합해서 周易이라 하고 그 理論을 일컬어 易理라 한다. 이는 哲學·科學·文化를 하나의 鎔鑪에 鎔解한 빛나는 古典이다. 周易에는 豊富한 辨證法思想¹¹⁾이 포함되어 있는데, 더욱 重要한 점은 精密한 醫學과 哲學的 理致가 들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醫學과 周易은 根源이 같다(醫易同源¹²⁾)는 說이 있게 되었다.¹³⁾ 周易의 理致는 深奧하고 뜻이 넓다. 韓醫學은 自然科學의 一部分이므로, 周易과 必然的으로 不可分의 關係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 周易과 韓醫學의 相通性은 그 思惟形式이 同一한 根源에서 나왔다는데 있다.¹⁴⁾ 그 重要點은 運動觀·整體觀·平衡觀 등에 集中되어 있다.¹⁵⁾

1) 運動觀

周易은 圓圖를 강조한다. 圓圖란 宇宙에 圓運動法則이 있음을 말한다. 周易의 64卦는 하나의 큰 圓이고 內卦의 6爻는 하나의 작은 圓이다. 모든 것에 圓의 循環이 充滿하다. 예컨대 泰卦에 말한 “평탄하다고 언덕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간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음이 없다.”¹⁶⁾ 易·繫辭에서 말한 “가고 오는 것에

9) 가노나오키 著·吳二煥 譯, 中國哲學史, 乙酉文化社, 1989, p.86.

10) 가노나오키 著·吳二煥 譯, 前掲書, p.91.

11) 楊力, 周易과 中國醫學(上), 法仁文化社, 1995, p.86.

“독일의 대哲學家 헤겔은 자전 속에서 자신의 正·反·合 三段階 변증原理는 易經의 ‘陰陽消長’ 原理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하였다.”

12) 張介賓, 類經圖翼·醫易義, 大星文化社, 1988, p.240.

“易者易也 具陰陽動靜之妙. 醫者意也 合陰陽消長之機 雖陰陽已備於內經 而變化莫大於周易 故曰天人一理者 此陰陽也. 醫易同原者 同此變化也.”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大星文化社, 1989, p.1.

“凡欲爲大醫 必須諳 甲乙黃帝針經 … 周易六壬并須精熟”

13) 楊力, 前掲書, p.33.

14) 張介賓, 前掲書, p.240. “豈非醫易相通 理無二致 可以醫而不知易乎.”

15) 楊力, 前掲書, pp.79-84.

16) 金敬琢, 周易, 明文堂, 1995, p.114.

끝이 없는 것을 통이라 한다.”¹⁷⁾ “해가 가면 달이 오고, 달이 가면 해가 오니, 해와 달이 서로 미루어 밝음이 생긴다. 겨울이 가면 여름이 오고, 더위가 가면 추위가 오니, 추위와 더위가 서로 미루어 한 해가 이루어진다.”¹⁸⁾ 등의 내용은 모두 圓圖의 現象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周易의 圓圖는 韓醫學에 있어 重要한 影響을 주었는데, 陰陽五行學說에 한층 圓圖의 觀點이 스며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예컨대 陰陽의 相互作用, 五行의 相生相克의 制約 등 모든 것들이 圓의 現象이다.¹⁹⁾

2) 整體觀

周易의 天地人 三才觀²⁰⁾의 실제 내용은 整體觀으로, 整體觀은 系統論의 核心이다. 예를 들어 臟象學說에서는 液體의 臟器·神志·液·體·竅 등을 모두 肝·心·脾·肺·腎의 다섯 系統으로 分類하여 歸屬 시킴으로써 다섯 種類의 臟象을 形成하였는데 이는 周易 卦象의 比類取象法²¹⁾을 흡수한 周易의 系統形式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²²⁾ 系統論은 全體와 部分의 動態關係를 파악하는 理論이며, 周易은 각종 情報體系를 갖춘 開放된 系統이다. 以上에서 韓醫學의 整體觀念이 三才 中 人體 自

體의 統一을 重視하고 있음을 說明하였다. 天地와의 關係, 즉 人體와 外界 環境과의 統一性을 重視함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易·坤卦·文言에서 “坤의 道는 順從하는 것이다. 하늘을 이어서 때에 맞게 實踐한다.”²³⁾고 하였는데 이는 天地自然의 道에 順應하는 萬事萬物은 天地自然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關係임을 說明하였다. 韓醫學에서는 人間을 大自然界 속의 작은 系統으로 보아 自然界가 人體에 미치는 影響을 상당히 重要하게 취급하였다. 이는 運氣學說이 臟象學說에 重要한 影響을 미치는 契機가 되었다. 예를 들어, 素問·陰陽應象大論의 “在天爲風 在地爲木 在體爲筋 在臟爲肝 在色爲蒼 在言爲角 宰聲爲呼 在變動爲握 在竅爲目 在味爲酸 在志爲怒”²⁴⁾는 內容에는 人間과 天地의 密接한 關係가 잘 반영되어 있다.

3) 平衡觀

周易은 均衡, 中和 및 對稱을 강조한다. 周易의 8卦 및 64卦의 卦爻 排列은 모두 對等하며, 또한 12消息卦의 爻卦排列 역시 陰陽消長の 對稱性 및 均衡性을 반영하고 있다.

17) 金敬琢, 前揭書, p.404.

18) 金敬琢, 前揭書, p.418.

19) 馬元臺·張隱庵 合註, 前揭書, p.441. “論言五運相襲 而皆治之 … 周而復始”

20) 金敬琢, 前揭書, p.430.

“易之爲書也 廣大悉備 有天道言 有人道言 有地道言 兼三才而兩之 故六 … 非他也 三才之道也.”

21) 金敬琢, 前揭書, p.385. “聖人設卦 觀象卦辭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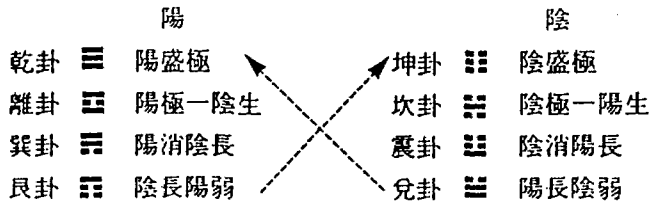
金敬琢, 前揭書, pp.398-399. “引而伸之 觸類而長之 天下之萬事畢矣”

金敬琢, 前揭書, p.412.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 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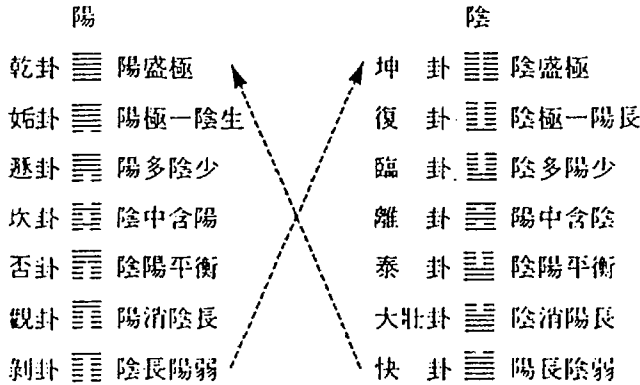
22) 楊力, 前揭書, pp.365-366.

23) 金敬琢, 前揭書, p.458. “坤道其順乎 承天而時行”

24) 馬元臺·張隱庵 合註, 前揭書, P.44.



(그림 1) 8卦의 陰陽消長盛衰



(그림 2) 64卦의 卦爻排列

여기서 우리는 周易의 8卦에 반영된 陰陽의 消長盛衰는 均衡的, 對稱的, 床褥의인 것으로 韓醫學에서 平衡觀의 基礎임을 알 수 있다. 平衡觀은 對立, 統一의 基礎 위에 세워져 自然界의 平衡과 人體內의 平衡 및 人體內外의 平衡을 包含한다. 그 中 自然界의 平衡은 運氣學說로 代表되며, 主要 要點은 勝·復·鬱·發²⁵⁾의 規則을 통하여 氣候의 安靜狀態에 到達한다는 데 있다. 人體內部的 平衡은 臟腑의 相關關係 및 經絡의 調節을 包含한다. 이는 氣機升降出入의 形式을 통하여 人體內外의 協助와 平衡을 完成한다. 韓醫學의 平衡理論은

周易의 陰陽平衡觀에서 根源했다. 周易의 陰陽平衡觀은 對立統一觀, 또는 平衡的 統一觀으로서 韓醫學의 自然觀, 社會觀과 人體의 生理, 病理 속에 스며들어 있다. 周易의 陰陽平衡觀은 8卦, 64卦爻의 構成 및 太極圖象 등에 반영되어 있는 것 외에, 文字에도 陰陽平衡理論이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平衡觀의 核心에는 中和觀이 있다. 中和의 目的은 平衡으로 나아가려는 데에 있다. 易傳의 主要部分은 儒家들에 의해 지어졌다. 그러므로 이 책은 儒家에서 말하는 ‘中庸’의 道²⁶⁾를 含蓄하여, ‘中和說’²⁷⁾에 對한 哲學的 基礎를 세웠다. 예

25) 馬元臺·張應庵 合註, 前揭書, pp.575, 582.

26) 成百曉 譯註, 大學·中庸集註, 傳統文化研究會, 1992, p.59.

“中者 不偏不可無過不及之名 庸 平常也 子程子曰 不偏之爲中 不易之爲庸 中者 天下之正道 庸者 天下之定理”

27) 成百曉 譯註, 前揭書, p.61.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成百曉 譯註, 前揭書, p.63. “中庸之中 實兼中和之義”

컨대 易·繫辭의 “陰과 陽이 그 機能을 합함으로써 剛健함과 柔純함이 모습을 갖추었다.”²⁸⁾는 句節, 易·乾卦·彖辭의 “큰 調和를 保存하고 和合시키면 이롭고 바를 수 있다.”²⁹⁾는 內容 등은 모두 陰陽의 調和를 강조한 것이다. 陰陽의 調和, 즉 和解는 量的인 面의 調和와 對等 및 質的인 面의 和解와 統一을 包含한다. 內經은 周易 ‘中和觀’의 影響을 받아서 基礎理論과 臨床治療를 莫論하고 모두 ‘和’ 思想을 內包하고 있다. 이것은 事實上 平衡論의 表現이다. 예컨대, 基礎理論에서 陰陽의 調和를 강조하기 때문에 素問·生氣通天論에서는 “凡陰陽之要 陽密乃固 兩者不和 若春無秋 若冬無夏 因而和之 是爲聖度 故陽強不能密 陰氣乃絕 陰平陽密 精神內治”³⁰⁾라고 한 것이다. 이는 陰陽이 和合하면 다스려지고 陰陽이 不和하면 紊亂해진다는 말이다. 이른바 ‘和’는 平和, 平衡을 意味한다. 不和를 바로 잡는 法이 調和이다. 平衡이 되게 하기 위한 和法은 가장 널리 쓰이는 治療 方法이다. 이 調和의 目的은 陰陽의 平衡을 維持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周易의 中和思想이 韓醫學의 基礎理論 및 臨床治療에 깊은 影響을 주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以後의 本論에서는 이 平衡觀(中和觀)을 中心으로 傷寒論의 方藥을 考察해 보고자한다.

(2) 易과 內經

內經의 成立年代는 易傳과 가깝다. 易傳은 春秋時代에서 戰國時代에 걸쳐 이루어졌고,

內經은 戰國時代에서 兩漢時代에 걸쳐 이루어졌다.³¹⁾ 그러므로 內經은 周易의 影響을 깊이 받아서 周易의 수많은 哲理와 易理가 모두 內經에 스며들었으며, 內經은 周易의 精華를 吸收하여 創造적으로 周易의 理論들을 發展시켰다. 그리하여 內經이 漢나라 以前의 醫學을 集大成한 醫學古典이 된 것이다.³²⁾ 內經은 비단 醫學經典으로서 뿐만 아니라 天文學·氣象學·心理學·演算學·生物學·地理學·人類學·哲學·論理學 等 여러 學文分野의 內容을 담고 있는 위대한 文獻으로 周易과 함께 서로가 서로를 빛내주고 있다.

內經은 周易과 당시 陰陽學說 思想의 影響으로 周易의 陰陽理論의 精華를 吸收했다. 內經은 周易의 陰陽哲學을 醫學에 결부하여 韓醫學의 基礎理論을 成立하였으며, 그 發展을 促進시켰다. 內經은 獨立된 編章을 設定하여 陰陽理論을 說明할 뿐만 아니라, 책 全般에 걸쳐 陰陽哲學을 應用하고 있어서 醫學理論과 哲學理論을 結合시킨 典型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內經의 陰陽應象大論, 陰陽離合論, 運氣七篇 등은 陰陽에 대해 專門으로 論議하였다. 여기서 提起된 命題는 상당한 水準의 哲學的 理致를 지닌다. 예컨대, 陰陽應象大論의 “陰陽이란 天地의 道이고, 萬物의 法則이며, 變化의 父母이고, 삶과 죽음의 根本이며, 神明의 倉庫이다.”³³⁾ “陰이 안에 있는 것은 陽이 이를 지키기 때문이며, 陽이 밖에 있는 것은 陰의

28) 金敬琢, 前掲書, p.424. “陰陽合德 而剛柔有體”

29) 金敬琢, 前掲書, p.237. “保合大和 乃利貞”

30) 馬元臺·張隱庵 合註, 前掲書, p.24.

31) 洪元植 編著, 前掲書, p.40-47.

“內經의 著作年代는 現在 확실히 考證할 수 없다. 책의 內容으로 보아도 결코 一時一人에 의하여 쓰여진 것은 아니다.”

32) 楊力, 前掲書, p.34.

33) 馬元臺·張隱庵 合註, 前掲書, p.35.

부림을 받기 때문이다.”³⁴⁾라고 한 내용과, 上古天真論의 “陰陽을 模範으로 하고 術數의 調和롭게 한다.”³⁵⁾는 내용이 모두 그러하다. 陰陽離合論은 陰陽離合을 가지고 陰陽 사이의 辨證關係를 精密하게 概括하였다. 이에 陰陽이 나뉘어 들어 되고 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大槪統一의 觀點이 包含되어 있고, 나아가 陰陽 사이의 主導關係가 明確히 論議되어 있다.³⁶⁾ 陰陽哲學을 醫學에 應用한 것은 陰陽理論의 특수한 發展으로서 內經의 가장 卓越한 成果인 同時에 內經이 周易을 능가하는 側面이기도 하다. 그리고, 內經 中의 重要한 基礎理論, 예를 들면 陰陽學說, 臟象學說, 氣化學說 等은 모두 周易에서 우리나온 것이다.³⁷⁾³⁸⁾ 이밖에도 周易은 풍부한 醫學史料, 즉 14가지 疾病의 記錄, 8가지 藥草의 이름, 여러 生理解剖 名稱, 시 집가서 生育 못하는 것, 心理治療 等を 싣고 있다. 그러므로 內經을 깊이 研究하고자 한다면, 그 淵源을 周易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³⁹⁾

(3) 傷寒과 內經

다음은 傷寒論이 과연 內經의 傳統을 繼承한 것이냐는 問題인데 이는 仲景의 傷寒論 序文에서 “... 撰用素問九卷八十一難陰陽大論 ... 謂傷寒雜病論合十六卷 ...”이라고 하였고, 素問 熱論에서 “傷寒一日 巨陽受之 故頭項痛 腰脊強 二日 陽明受之 揚名主肉 其脈挾鼻絡於目 故身熱目疼而鼻乾 三日 少陽受之 少陽主膽 其脈循俠絡於耳 故胸脇痛而耳聾 四日 太陰受之 太陰脈布胃中 絡於 故腹滿而噎乾 五日 少陰受之 少陰脈貫腎 絡於肺 繫舌本 故口燥舌乾而渴 六日 厥陰受之 厥陰脈循陰器而絡於肝 故煩滿而囊縮”⁴⁰⁾라고 하였고, 이밖에도 素問·刺志論의 “氣盛身寒 得之傷寒”⁴¹⁾, 素問·陰陽應象大論의 “冬傷于寒 春必病溫”⁴²⁾, 素問·水熱穴論의 “人傷于寒而傳爲熱 何也 岐伯曰 夫寒甚則生熱也”⁴³⁾의 內容은 傷寒論에서 六經病提綱의 原形을 보여주어⁴⁴⁾⁴⁵⁾ 內經과의 關係를 直接的으로 말하고 있다.⁴⁶⁾ 이는 辨證論治의 思想이 이미 內經에 있었다고는

34) 馬元臺·張隱庵 合註, 前揭書, p.48.

35) 馬元臺·張隱庵 合註, 前揭書, p.1. “法於陰陽 和于術數”

36) 楊力, 前揭書, p.74.

37) 楊力, 前揭書, pp.71-72.

1) 周易의 陽爻, 陰爻間의 陰陽關係 및 周易의 卦象에 깃들여 있는 陰陽의 原理는 陰陽學說의 起源이 된다.

2) 周易의 無極, 太極圖는 精氣學說, 陰陽學說의 根本이 된다.

3) 周易의 爻象, 卦象은 臟象學說의 根源이 된다.

4) 周易의 6爻는 六經, 六經體系, 六經辨證과 密接한 關係를 가진다.

5) 周易 卦爻의 天·地·人의 位置는 三篇醫學과 密接한 關係가 있고 中國醫學 整體觀의 淸사진을 이룬다.

6) 周易의 圓道는 圓運動의 起源이 된다.

7) 周易의 中和觀은 平衡論, 協助論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38) 楊力, 前揭書, pp.71, 75.

39) 楊力, 前揭書, p.34.

40) 馬元臺·張隱庵 合註, 前揭書, pp.224-225.

41) 馬元臺·張隱庵 合註, 前揭書, p.353.

42) 馬元臺·張隱庵 合註, 前揭書, p.42.

43) 馬元臺·張隱庵 合註, 前揭書, p.405.

44) 愼賢傑, 張仲景의 生涯와 關聯된 諸問題에 對한 考察, 大田大學校大學院, 1992, p.45.

45) 閻洪臣, 傷寒論析要, 吉林人民出版社, 1984, p.12.

周石卿, 傷寒論百題解, 福建科學技術出版社, 1985, pp.3-4.

程昭實, 傷寒心悟, 學苑出版社, 1989, pp.34-36.

46) 閻洪臣 主編, 前揭書, pp.4-5.

田合祿, 中醫外感三部六經說, 山西科學教育出版社, 1990, pp.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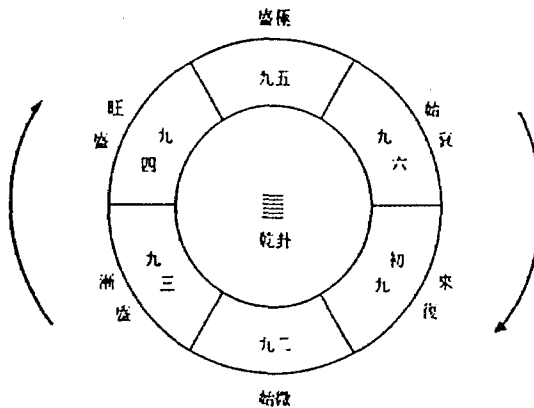
하지만, 傷寒論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 理論을 確立하고 內經에 未備했던 藥物의 應用에 대하여 臨床實證을 했다고 하겠다.⁴⁷⁾ 그리고, 三陰三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이름 그 이상으로, 陰陽氣의 多少를 表示하며 당연히 一陰一陽하는 變化의 過程中에서의 各段階를 包含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素問·天元紀大論에서 “陰陽之氣 各有多少 故曰三陰三陽”⁴⁸⁾이라고 말하는 바와 같음이 이를 證明한다 하겠다.

(4) 傷寒과 易

다음은 傷寒論에 對한 周易의 影響을 살펴 보자.

仲景先生이 “勤求古訓”하여 著述한 傷寒論은 그 基本 理論의 誕生에 있어 易이 淵源이라는 것에 對한 明確한 證據는 없으나, ‘六經辨證’이라는 素朴한 辨證體系를 應用한 것을 볼 때 易의 哲理를 體現했다고 볼 수 있다.⁴⁹⁾ 易은 天道와 人事를 결부시켜 天道로부터 人

事를 說明하는 것인데⁵⁰⁾ 易의 64卦, 384爻는 한편에 있어서는 陰陽의 消長, 곧 自然의 變化를 나타내는 것이요, 또 한편에 있어서는 人間의 모든 境遇를 나타내는 것이다.⁵¹⁾⁵²⁾ 이는 中國 古代思想에 있어서 自然界의 法則과 人事의 法則이 아무런 差異點도 없다는 것을 잘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傷寒論에 對한 周易의 影響은 自然界의 運行과 그 氣運의 變化象을 나타내는 周易의 6爻인 三陰三陽과 傷寒論의 ‘六經辨證體系’의 形成에 나타난다. 周易의 64卦는 모두 6爻로 造成되어 있는데, 이 6爻의 變化는 三陰三陽의 消長變化를 반영하고 있다. 6爻는 초爻에서 6爻로 構成되며, 이들 全體는 하나의 陰陽消長轉換週期를 構成한다. 初爻로부터 6爻까지는 陽氣가 微微한 狀態로부터 隆盛한 狀態, 隆盛한 狀態로부터 衰退하는 狀態, 衰退하는 狀態로부터 다시 回復되는 狀態로의 法則體系를 나타내주고 있다.



(그림 3) 乾卦爻象의 陰陽盛衰消長

47) 朴贊國, 前掲書, p.200.

48) 馬元臺·張隱庵 合註, 前掲書, p.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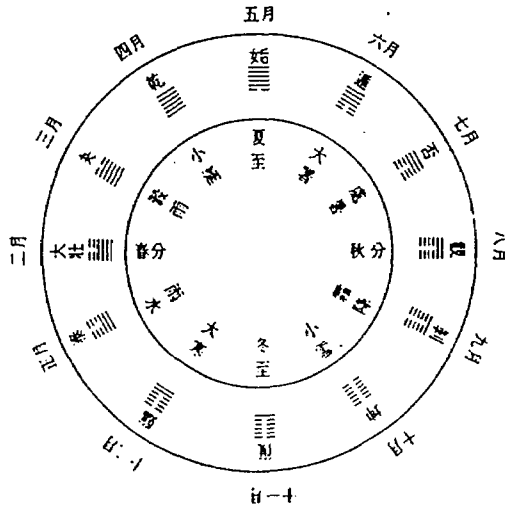
49) 李浚川·肅漢明 主編, 前掲書, p.120.

50) 金敬琢, 前掲書, p.388.

“易與天地準 … 仰以觀於天文 俯以察於地理 是故 知幽明之故 … 故知死生之說”

51) 가노나오키 著·吳二煥 譯, 前掲書, p.93.

52) 金敬琢, 前掲書, p.392. “聖人有以見天下之動 而觀其會通 以行其典禮 繫辭焉 以斷 其吉凶”



(그림 4) 12消息卦應月圖

그 예로 乾卦爻象의 陰陽盛衰消長⁵³⁾은 (그림 3)과 같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64卦와 달에 따른 氣運의 變化關係를 各各 64卦中에서 酸卦를 配置한 (그림 4)의 12消息卦應月圖를 보면 理解가 간다. 子月(11月)과 午月(5月)을 基準으로 一年陰陽 消息의 變化는 다음과 같다.⁵⁴⁾

陽分은 始微(漸盛)－旺盛－始衰, 陰分은 始微(漸盛)－旺盛－來復으로 各各 3段階(三陰三陽)⁵⁵⁾를 밝게 된다. 물론 極端的으로 始終의 兩端으로 論할 수도 있겠지만 原因이 없는 結果가 없듯이 過程이 없는(中間 段階가 없는) 變化를 생각 할 수 없다.⁵⁶⁾

또 하나 易의 思想으로서 列舉해야 할 것은,

53) 金敬琢, 前掲書, pp.81, 292.

“乾은 크게 通하니 곧고 발라야 이롭다. (初九) 물 속에 잠겨 있는 龍이니 쓰지 말 것이다. (九二) 나타난 龍이 눈에 있으니, 大人을 보아야 이롭다. (九三) 君子가 종일도록 씩씩한 모습으로 저녁까지 근심하면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을 것이다. (九四) 연못에서 뛰어놀기도 하니, 허물이 없을 것이다. (九五) 나는 龍이 하늘에 있다. 大人을 만나봄이 이롭다. (上九) 높은 龍이니 뉘우침이 있으리라.

[初九] 潛龍勿用(陽在下也) [九二] 見龍在田 利見大人 [九三] 君子終日乾乾 夕惕若 厲無咎

[九四] 或躍在淵 無咎 [九五] 飛龍在天 利見大人 [上九] 亢龍有悔

以上을 陰陽盛衰의 觀點에서 풀어 쓴 것이 위의 說明에 該當된다.

54) 楊力, 周易과 中國醫學(下), 法仁文化社, pp.100-102.

12消息卦應月圖는 漢代의 易學者인 孟喜가 創立한 卦氣說이 起源이다. 그는 64卦를 12달, 24節氣 및 72候와 配合하였는데, 그 중에 12달 卦氣說은 바로 12酸卦로 12달과 對應시킨 것이다.

55) 여기서 말한 陽分과 陰分에서의 3段階는 乾卦爻象의 陰陽盛衰消長을 參考하여 任意로 規定한 것이다.

56) 老子·황병국 옮김, 老子道德經, 汎友社, p.17

楊力, 前掲書(上) p.35

老子·道德經 42章에 보면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負陰而包陽 沖氣以爲和”라고 萬物의 始原이 3段階를 거치면서 生成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一과 二는 三을 위한 準備이며, 따라서 三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變化가 生하게 한다고 理解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老子·道德經의 一部分은 곧 易經의 註釋이라고 할 수 있으며, 思想의 根源은 周易이라고 한다.

(中正)⁵⁷⁾을 중히 여긴다는 것이다. 易의 64卦에 대해 爻辭를 검토해 보면, 가장 重視하는 것은 ‘中正’을 얻는다는 것이다. 64卦 가운데, 卦全體로서 吉인 卦, 凶인 卦가 있음은 물론이지만, 설사 본래가 凶卦라도, 爻辭를 검토해 보면, 中爻에 屬하는 것의 辭에는 흔히 ‘吉’이라든가 “뉘우침이 없어진다(悔忘).”든가 “허물이 없다(無咎).”든가 하는 말이 있다. 이는 사람이 어떠한 境遇에 있어서도 中道를 移行하면 禍를 避하고 혹은 吉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친 것이다. 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天道 곧 自然의 法則에 있어서도 陰陽, 寒暑 등이 결국은 각각 그 中을 얻는다. 따라서, 人間에 있어서도 그 境遇에 여러 가지 種類가 있지만, 이에 處하여 그 中을 얻음이 善이요, 또 同時에 禍를 避하고 吉에 나아가는 所以임을 보여 준다.⁵⁸⁾ 이 ‘尊中’의 思想⁵⁹⁾은 周易의 平衡觀과 더불어 仲景 傷寒論의 處方의 構成과 劑法·服藥法·煎湯法에서 具體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III. 本 論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傷寒論의 學術思想의 淵源이 內經은 물론이고 周易의 傳統을 繼承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以後에서는 周易과 醫學의 相通點 中의 하나인 ‘平衡觀’과 ‘中和’의 觀7點이 方藥에서 어떻게 具體적으로

로 適用되었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1. 桂枝湯

桂枝 三兩, 芍藥 三兩, 甘草 二兩(炙), 生薑 三兩(切), 大棗 十二枚

右伍味咀, 以水七升, 微火煮取三升, 去滓, 適寒溫, 服一升, 服已須臾, 飲熱稀粥一升餘, 以助藥力. 溫覆令一時許, 通身發熱微似有汗者益佳, 不可令如水流, 病必不除. 若一服汗出病差, 停後服, 不必盡劑. 若不汗, 更服依前法. 又不汗, 後服當小促其間, 半日許, 令三服盡. 若病重者, 一日一夜服, 周時觀之, 服一劑盡, 病證猶在者, 更作服. 若汗不出者, 乃服至二三劑. 禁生冷粘滑肉麵五辛酒酪臭惡等物.

○方藥

8法 中에서 和法은 가장 널리 쓰이는 治療方法이다. 예를 들면 表과 裏를 和解시키고, 營氣와 衛氣를 調和시키며, 肝과 內臟을 和解시키는 것 등은 모두 ‘和’의 範疇에 속한다. 少陽病의 小柴胡湯이 代表的인 和解劑라던, 桂枝湯은 營과 衛를 調和시키는 方에 該當한다. 따라서, 太陽病 治方中의 和解劑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本方의 氣味를 大別해 본다면 辛溫·酸寒·甘溫으로 나눌 수 있다. 一辛(散)一酸(收)는 表의 營衛不和를 調節하여 外邪를 쫓는 同時에 過汗으로 인한 正氣의 損傷을 豫防하고, 酸甘(酸甘合化爲陰: 甘先入脾)은 稀粥과 아울러

57) 金敬瑛, 前掲書, pp.29-30.

“二爻를 內卦의 中이라 하고, 五爻를 外卦의 中이라 한다. 또 陽爻가 陽位(初爻·三爻·五爻)에 있고 陰爻가 陰位(二爻·四爻·上爻)에 있으면 正이라 하는데, 특히 內外卦의 中爻가 正位에 있을 때 이것을 ‘中正’이라 하여 吉한 것을 나타내고, 그렇지 못할 때는 대개 凶한 것을 나타낸다. 中正의 가장 理想的인 卦는 水火 既濟卦다.”

58) 가노나오키 著·吳二煥 譯, 前掲書, pp.94-95.

59) 金敬瑛, 前掲書, p.389. “一陰一陽謂之道”

60) 周易에서는 正이라도 中을 얻지 못한 것은 반드시 吉하지 못하다고 할 정도로 “中正”한 것을 吉이며 가장 善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일컬어 任意로 定義하였다.

汗의 根源인 津液을 供給하여 補中하게 된다.⁶¹⁾ 易의 64卦에 對한 爻사에서도 中正을 얻음을 가장 重視하였듯이, 醫學입문의 傷寒篇에서도 “汗·吐·下·溫·解의 五法은 中을 얻는 것이 貴하며 不及함이 太過보다 나을 것이고, 病症은 이것 같으되 아닌 것이 있으니 알지 못하거나 治療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으니라.” 고 하여 中을 얻음을 重視하였다.⁶²⁾⁶³⁾ 本方에서도 一散 中에 一收하여 中을 이루었다.

○煎湯法

煎湯法에 보면, 咬咀라는 文句가 있는데 이는 잘게 씹어 馬斗 크기로 하여 服用時에 쉽게 經絡을 行하여 升散하게 하는 것이 目的이다.⁶⁴⁾ 이는 芍藥에 비추어 볼 때, 一收 中에 一散의 意味를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調理法

服藥後에 胃口 따뜻한 粥을 服用하여 藥力을 돕는데, 이는 곡기가 내에 충실하게 되어 外邪가 다시 들어 오지 못하게 한다.⁶⁵⁾ 桂枝湯은 正氣를 도우면서 邪氣를 몰아내고, 外를 保護하면서 또한 內部를 安靜하게 한다.⁶⁶⁾

2. 桂枝去芍藥加蜀漆龍骨牡蠣救逆湯

桂枝 三兩(去皮) 甘草 二兩(炙) 生薑 三兩(切) 牡蠣 五兩(熬) 龍骨 四兩 大棗 十二枚

(擊) 蜀漆 三兩(洗去脚)

上七味, 以水一斗二升, 先煮蜀漆, 減二升, 內諸藥, 煮取三升, 去滓, 溫服一升.

○煎湯法

方藥 中의 蜀漆은 常山の 苗葉으로 性味와 效能이 모두 常山과 같으나, 宣發涌吐 시키는 作用은 比較的 강하다.⁶⁷⁾ 氣味는 寒有毒辛苦하고 性峻猛하므로 先煮하여 그 性을 緩和하게 하여 蜀漆의 峻猛함이 正氣를 傷하지 않게 함으로서 一峻 中에 一緩의 調和를 이룬다.⁶⁸⁾

3. 茯苓桂枝甘草大棗湯

茯苓 半斤, 甘草 三兩(炙), 大棗 十五枚(擘), 桂枝 四兩

上四味, 以甘瀾水一斗, 先煮茯苓, 減二升, 內諸藥, 煮取三升, 去滓, 溫服一升, 日三服.

作甘瀾水法: 取水二斗, 置大盆內, 以杓揚之, 水上有珠子五六千顆相逐, 取用之.

○煎湯法

本方에서는 煎湯時에 一名 甘瀾水, 勞水⁶⁹⁾ 라고 하는 甘瀾水를 使用하는데, 甘瀾水를 만들 때는 물을 잘 저어 충분히 끓여 水寒의 性을 除하여 臍下의 水邪를 除지 못하게 한다.⁷⁰⁾ 그리고, 本方의 主藥인 茯苓 半斤을 먼저 끓여

61) 柯琴, 傷寒來蘇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208.

62) 李經, 編註醫學入門, 大星文化社, 1986, pp.48-49.

63) 成百曉, 前揭書, p.64. “子曰 道之不行也 我知之矣 知者過之 愚者不及也”

64) 李東垣, 東垣十種醫書·湯液本草, 大星文化社 影印, 1991, pp.346-347.

“仲景言 挫如麻豆大如吹 咀同意. 夫吹咀 古之制也. 以口咬細 令如麻豆 爲粗藥 煎之 使藥水清 飲於腹中即易升易散也. 此所以吹咀也. 經云 清陽發腠理 濁陰主五臟 果何爲也? 又曰 清陽實四肢 濁陰歸六腑. 吹咀之藥 取汁 易行經絡也.”

65) 柯琴, 前揭書, p.208.

66) 尤在涇, 傷寒貫珠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4.

67) 康秉秀 外 主編, 本草學, 永林社, 1988, p.636.

68) 阮子光, 傷寒論湯證新編,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3, p.29.

69) 湖北中醫學院主編, 傷寒論講義,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6, p.78.

70) 尤在涇, 前揭書, p.37.

湖北中醫學院主編, 前揭書, p.78.

그 作用을 緩하게 할 뿐만 아니라, 持續的으로 作用케 하고, 中氣가 茯苓의 利下함을 따라 下陷함을 考慮하여 桂枝·甘草·大棗의 甘藥을 投與하여 補中하여 健運의 功을 이룬다.”⁷¹⁾

4. 小建中湯

桂枝 三兩, 甘草 二兩(煮), 大棗十二枚(擘), 芍藥 六兩, 生薑 三兩(切), 膠飴一升

上六味 以水七升 煮取三升 去滓 內飴 更上 微火消解 溫服一升 日三服. 嘔家不可用建中湯, 以暍故也.

○方藥

本方은 脾陽不足으로 인한 陰火⁷²⁾의 逆上에 있다. 즉, 劑方目的이 陽虛에 있는데 왜 酸寒한 芍藥을 桂枝湯에 비해 倍加해서 使用하였는가? 이는 甘溫한 膠飴을 多量 使用하므로 酸苦微寒한 芍藥을 倍用하여 陰陽寒熱의 均衡을 맞추어 中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⁷³⁾

○命名

命名에 있어서도 ‘桂枝加某藥湯’ 등의 方名을 使用하지 않고 ‘建中’이라 하였다. 中焦脾胃가 비록 裏에 속하지만, 營衛의 生成이 脾胃를 떠나지 못하므로 三陽의 表인 太陽에서도 後天의 均衡과 調和의 核인 ‘中’의 意味를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⁷⁴⁾ 그리고, ‘小’라

고 한 것은 本方이 外證이 아직 풀리지 않아 生薑과 桂枝를 使用하여 散寒하니, 太陰病의 ‘理中湯’과 같이 全的으로 治中에 임하지 않으므로 ‘小’라고 한 것이다.”⁷⁵⁾

5. 桂枝加芍藥湯

桂枝 三兩, 芍藥 六兩, 甘草 二兩(煮), 大棗十二枚(擘), 生薑 三兩(切)

上五味 以水七升 煮取三升 去滓 溫分三服

○方藥

本方은 營衛不和 脾胃不調로 인한 腹滿時痛에 使用한다. 處方構成은 桂枝湯에 芍藥 三兩을 加하였는데, 桂枝와 生薑의 辛溫(陽)과 芍藥의 酸寒(陰)이 ‘1:1’의 比率을 이룬다. 桂枝湯 中의 生薑은 桂枝의 通陽을 도우니 그 性이 辛溫에 偏盛하므로, 芍藥을 加하여 그 偏盛을 制御하여 陰陽을 調和한다.”⁷⁶⁾ 이를 柯琴은 ‘用陰和陽’이라고 하였다.”⁷⁷⁾

6. 桂枝加附子湯

桂枝 三兩, 芍藥 三兩, 甘草 三兩(炙), 生薑 三兩(切), 大棗 十二枚(擘), 附子 一枚(炮 去皮 破八片)

上六味, 以水七升, 煮取三升, 去滓, 溫服一升. 本云: 桂枝湯, 今加附子. 將息如前法.

71) 柯琴, 前揭書, p.219. “制以所畏 令一惟下趨耳” 湖北中醫學院主編, 前揭書, P.78.

72) 李東垣, 前揭書, pp.91,92,106.

“陰火… 脾胃氣衰 元氣不足而心火獨盛 心火者 陰火也,起於下焦 其系繫於心 心不主令 相火代之 相火下焦絡之火 元氣之賊也. 一勝則一負 脾胃氣虛則下流於腎 陰火得以乘其土位 …夫陰火之治盛 由心生癡滯 七情不安故也.”

73) 龐子光 外, 前揭書, p.40.

74) 汪昂, 醫方集解, 大星文化社, 1990, p.225.

“脾居四臟之中 生育營爲通行津液 一有不調則失所有所行矣”

吳謙, 醫宗金鑑, 人民衛生出版社, 1982, p.68. “小小建立中氣也”

75) 柯琴, 前揭書, p.259.

76) 龐子光 外, 前揭書, p.43.

77) 柯琴, 前揭書, p.222.

○方藥

小建中湯이 桂枝湯에 芍藥을 倍하고 飴糖一升을 加하여 中에 一陰을 加하였다면, 桂枝加附子湯은 桂枝湯에 附子(一陽)을 加하여 桂枝湯을 中心으로 一陰一陽의 處方이 된다고 하겠다.

7. 芍藥甘草湯

白芍藥 四兩, 甘草 四兩(炙)

上二味, 以水三升, 煮取一升半, 去滓, 分溫再服之.

○方藥

本方은 芍藥의 酸寒으로 養營和血하고, 炙甘草의 甘溫으로 補中緩急하여 陰氣를 回復하게 하고 養筋함으로써 脚攣急을 治療한다.⁷⁸⁾ 이때 芍藥의 一陰과 炙甘草의 一陽은 合하여 酸甘合化爲陰으로서의 意味뿐만 아니라, 甲己(酸甘)이 合하여 치우침이 없이 和緩의 中土의 意味로도 解釋되었다.⁷⁹⁾

8. 桂枝加葛根湯

葛根 四兩, 桂枝 三兩(去皮), 芍藥 二兩, 生薑 三兩(切), 甘草 二兩(炙), 大棗 十二枚(擘)

上六味, 以水一斗, 先煮葛根減二升, 內諸藥, 煮取三升, 去滓, 溫服一升, 覆取微似汗, 不須啜粥, 餘如桂枝法將息 禁忌.

○方藥

本方은 桂枝湯(減桂枝·芍藥 各 一兩)에 葛根 四兩을 加하여 項背強几几 反汗出惡風을 다스리는데, 桂枝·芍藥은 一陽씩 減하여 葛根의 發汗過多를 監督한다.⁸⁰⁾

○煎湯法

葛根의 監督은 이로 끝나지 않고, 先煮하여 그 性을 和緩하게까지 하는데 이른다.

9. 桂枝加芍藥生薑人蔘新加湯

桂枝 三兩, 芍藥 四兩, 甘草 二兩(炙), 人蔘 三兩, 大棗 十二枚(擘), 生薑 四兩

上六味 以水一斗二升 自炊三升 去滓 溫伏一升

○命名法, 方藥

本方은 發汗 後에 營衛不和 經脈失養으로 인한 身疼痛과 脈沈遲에 使用한다. 處方 中 桂枝湯은 營衛를 調和시키고, 生薑 一陽을 더 함으로써 桂枝를 도와 衛氣를 宜通하게 하여 人蔘으로 인한 實邪의 憂慮를 없게 한다. 그리고, 芍藥 一兩을 加한 것은 和營衛의 法으로 本方의 妙는 生薑과 芍藥을 各各 一兩씩 加한 것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桂枝湯에 分量의 理致를 새로이 加하였다하여 '新加'의 名이 있게 된 것이다.⁸¹⁾

10. 麻黃湯

麻黃 三兩(去節), 桂枝 二兩(去皮), 甘草 一兩(炙), 杏仁 七十箇(湯去皮尖)

右四味, 以水九升, 先煮麻黃, 減二升, 去上沫, 內諸藥, 煮取二升半, 去滓, 溫服八合, 覆取微似汗, 不須啜粥 餘如桂枝法將息.

○煎湯法

本方은 皮膚血管을 擴張하여 皮膚와 粘膜의 血液循環을 旺盛하게 하여 人體抵抗力을 體表에 集中시켜 汗腺의 排泄을 促進하고 濕熱의

78) 湖北中醫學院主編, 前揭書, p.90.

79) 黃度淵, 方藥合編, 南山堂, 1989, p.216.

80) 章虛谷, 醫門棒喝(下), 大星文化社, 1989, p.441.

81) 章虛谷, 前揭書, p.472.

放散을 增加시켜, 體溫調節中樞를 調節하여 體溫의 生成과 放散의 混亂을 矯正하는 發汗 解表의 峻劑다.⁸²⁾ 하지만, 煎湯法에서 一峻 中에 稍緩하는 中和의 意味가 있다. 本方은 生薑과 大棗를 使用하지 않아 體表에로의 直達을 目標로 하였다.⁸³⁾ 하지만, 本方은 發表의 峻劑지만 먼저 麻黃을 끓이고, 또 甘草를 使用함으로써 峻劑의 性質을 緩하게 하여 陽氣로 하여금 두루 돌게 하여 調理法에서와 같이 藥간 ㅅㅅ이 나는 듯하게 한다. 이는 發散을 迅速하게 하여 大汗淋瀝케 하면 陽氣가 두루 行하지 못하고 外奔하여 그 邪가 도리어 능히 나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⁸⁴⁾ 그리고, 藥이 끓을 때 위의 거품을 除去하는데, 이는 麻黃의 輕浮한 氣가 氣를 이끌고 上逆함이 過하여 病人으로 하여금 煩躁하게 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⁸⁵⁾

麻黃湯의 예에서와 같이 麻黃을 먼저 끓이고 나서 거품을 除去하는 處方은 大·小青龍湯, 麻黃附子細辛湯, 麻黃附子甘草湯, 麻黃連翹赤小豆湯, 麻黃升麻湯, 麻黃杏仁甘草石膏湯, 葛根湯, 葛根加半夏湯, 桂枝麻黃各半湯, 桂枝二麻黃一湯, 桂枝二越婢一湯이 있다.⁸⁶⁾

11. 大青龍湯

麻黃 六兩(去節) 桂枝 二兩(去皮) 甘草 二兩(炙) 杏仁 四十箇(去皮尖) 生薑 三兩(切) 大棗

十二枚(擘) 石膏 如鷄子大(碎)

上七味, 以水九升, 先煮麻黃, 減二升, 去上沫, 內諸藥, 煮取三升, 去滓, 溫服一升, 取微似汗. 汗出多者, 溫粉撲之. 一服汗者, 停後服, 汗多亡陽, 遂虛惡風, 煩躁不得眠也.

○方藥

石膏는 性이 沈하고 大寒하여 鬱熱과 煩躁는 除하여지지만 그 寒이 中을 傷하게 하여 挾熱下利의 變證이 生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麻黃을 倍加하여 發表하고, 甘草로서 和中한다. 위에서와 같이 石膏가 裏不和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生薑과 大棗를 使用하여 營衛를 調和하여 이를 調節한다.

○煎湯法

本方은 麻黃(六兩)이 主藥으로 麻黃을 先煮하고 去上沫하게 된 것이다.⁸⁷⁾

○命名法

易經에서는 ‘觀物取象’이라 하였고, 易傳에서는 ‘觀象取意’라 하였다. ‘象’에 대하여 易·繫辭에서 “易이라는 것은 萬物의 形象을 말한 것이고 象이라는 것은 形象을 본뜬 것이다.”⁸⁸⁾라고 하였다. 이는 形象, 象徵을 意味한다.⁸⁹⁾ ‘靑龍之名’은 陽에 속하는 汗을 天地에 내리는 비에 비유하여 命名한 것으로,⁹⁰⁾ 本方의 解肌兼發汗이 龍이 날면 雲昇雨降하여 天地가 清涼해지듯 鬱熱로 인한 煩躁가 낮게 됨을

82) 邱子光, 前掲書, p.69.

83) 柯琴, 前掲書, pp.208-209

“生薑 … 橫散於肌 碍麻黃之迅升 此欲急於直達 大棗 … 遲滯於脈 碍杏仁之速降 稍緩則不迅 橫散則不峻 此欲急於直達 稍緩則不迅 橫散則不峻 … 此爲純陽之劑 過於發汗 如單刀直入之將 用之若當一戰成功 汗後不解 便當以桂枝湯代之.”

84) 章虛谷, 前掲書, p.405.

85) 吳謙, 前掲書, p.56.

86) 王輝武·張啓基 合編, 傷寒論手冊, 科學技術出版社重慶分社, p.223.

87) 王輝武·張啓基 合編, 前掲書, p.223.

88) 金敬琢, 前掲書, p.416.

89) 楊力, 前掲書, p.237.

90) 王新華 編著, 中醫歷代醫論選,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0, p.431.

素問·陰陽應象大論 “陽之汗 以天地之兩名之”

取象한 것이라 하겠다.⁹¹⁾

12. 麻黃杏仁甘草石膏湯

麻黃 四兩(去節) 杏仁 五十箇(去皮尖) 甘草 二兩(炙) 石膏 半斤(碎綿裹)

上四味, 以水七升, 先煮麻黃, 減二升, 去上沫, 內諸藥, 煮取二升, 去滓, 溫服一升.

○煎湯法

물 7升과 함께 麻黃을 끓여 2升을 줄인 다음, 나머지 藥과 함께 끓이는데 이는 麻黃의 發表力이 迅速함을 두려워하여 그 性質을 緩하게 함으로써 나머지 藥들과 和合함과 同時에 裏邪의 熱化로 인해 閉塞된 肺竅를 열어 治喘하게 된다.⁹²⁾

13. 小青龍湯

○煎湯法과 命名法은 大青龍湯에 준한다.

14. 麻黃附子甘草湯

麻黃 二兩(去節) 甘草 二兩(炙) 附子 二兩(炮 去皮)

上三味, 以水七升, 先煮麻黃一兩沸, 去上沫, 內諸藥, 煮取三升, 去滓, 溫服一升, 日三服.

○方藥

本方은 麻黃附子細辛湯에서 細辛의 辛散을 甘草로 바꾸어 和中하게 하고, 아울러 過度한 發散을 制約하여 微汗을 얻게 한다.⁹³⁾

○煎湯法

그 後에도 먼저 麻黃을 1-2번 끓이고, 위의 거품을 除去하는데 이는 發表의 迅速함을 甘

草로 制約하는 中에 다시 發表의 迅速함을 取한 것이라 하겠다.⁹⁴⁾

15. 麻黃連翹赤小豆湯

麻黃 二兩(去節) 赤小豆 一升 連翹 二兩(連翹根也) 杏仁 四十箇(去皮尖) 大棗 十二枚 生梓白皮 一升 生薑 二兩(切) 甘草 二兩(炙)

上八味, 以潦水一斗, 先煮麻黃再沸, 去上沫, 內諸藥, 煮取三升, 分溫三服, 半日服盡.

○煎湯法

우선 麻黃을 먼저 끓여 그 性을 緩하게 하지만, 服藥法에서 보통 一日三服이 아니라 反日에 모두 服用하여 一緩 中에 一急의 뜻을 이룬다.⁹⁵⁾

16. 葛根湯·葛根加半夏湯

• 葛根湯

葛根 四兩 麻黃 三兩(去節) 桂枝 二兩(去皮) 芍藥 二兩(切) 甘草 二兩(炙) 生薑 三兩(切) 大棗 十二枚(擘)

上七味, 以水一斗, 先煮麻黃葛根, 減二升, 去白沫 內諸藥, 煮取三升, 去滓溫服一升. 覆取微似汗, 不須啜粥, 餘如桂枝法將息及禁忌.

• 葛根加半夏湯方

葛根 四兩 麻黃 三兩(去節 湯泡 去黃汁 焙乾稱) 生薑 三兩(切) 甘草 二兩(炙) 芍藥 二兩 桂枝 二兩(去皮) 大棗 十二枚(擘) 半夏 半斤(洗)

上八味以水一斗, 先煮葛根麻黃, 減二升, 去白沫內諸藥, 煮取三升, 去滓溫服一升, 覆

91) 吳謙, 前揭書, p.102.
金敬琢, 前揭書, p.385. “聖人說卦 觀象繫辭焉”
92) 章虛谷, 前揭書, p.485.
93) 柯琴, 前揭書, p.247.
94) 章虛谷, 前揭書, p.451.
95) 柯琴, 前揭書, p.216.

取微似汗.

○煎湯法

本方은 葛根(四兩)·麻黃(三兩)·桂枝·生薑 등의 發表解肌力이 比較的 강한 藥物 들로 構成되어 있다. 따라서, 主藥인 葛根·麻黃을 먼저 끓여 輕浮升散한 性質을 緩和하게 하여, 나머지 藥들과 融和하게 함으로써 肌肉營衛를 疏通하게 한다.⁹⁶⁾ 그리고, 거품은 濁氣로, 藥이 끓을 때의 거품은 除去하는데, 이는 ‘清陽發腠理’⁹⁷⁾의 뜻을 取한 것으로⁹⁸⁾ 葛根·麻黃을 먼저 끓이는 것과 거품을 除去하는 것이 一陰一陽이 된다고 하겠다.

17. 葛根黃芩黃連湯

葛根 半斤 甘草 二兩(炙) 黃芩 二兩 黃連 三兩

上四味, 以水八升, 先煮葛根, 減二升, 內諸藥, 煮取二升, 去滓分溫再服.

○煎湯法

本方의 主藥인 葛根(半斤)을 먼저 끓여 解肌의 作用을 純하게 하고, 後에 나머지 藥을 넣어 清中의 作用을 先行하게 한다.⁹⁹⁾

18. 大黃黃連瀉心湯

大黃 二兩 黃連 一兩

上二味 以麻沸湯二升漬之須臾 絞去滓 內附子汁 分溫再服.

○煎湯法

藥味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特定 藥物의

量이 많을 뿐더러 性이 峻猛할 때 먼저 끓이고, 오래 끓인다. 本方에서는 위의 藥味를 끓는 물에 잠시 담갔다 꺼내어 清淡한 性味를 取하여 胃熱과 心下를 清解하므로 痞滿을 治療하게 한다.¹⁰⁰⁾¹⁰¹⁾ 大黃과 黃連의 久煎과 比較해 보면, 久煎하면 濃汁이 되어 味厚하여 腸道로 行하여 瀉下作用을 일으키게 되니,¹⁰²⁾ 이들은 煎湯法의 一陰一陽이라고 하겠다.

19. 附子瀉心湯

大黃二兩 黃連一兩 黃芩一兩 附子一兩(炮去皮波 別煮取汁)

上四味 切三味 以麻沸湯 二升漬之須臾 絞去滓 內附子汁 分溫再服.

○煎湯法

本方은 表陽虛衰와 胃中蘊熱이라는 相反된 矛盾을 治療한다. 그리고, 大黃·黃芩·黃連의 苦寒(陰)이 附子の 辛熱(陽)을 勝하고 있다. 이 矛盾을 煎湯法에서 어떻게 處理하였는지 살펴보면, 끓는 물에 三黃을 잠깐 담귀 氣味의 清薄함을 取하여 上部心下의 邪熱을 清解하고 痞證을 治療하였다. 表陽虛衰는 辛溫大熱한 附子를 따로 끓여 汁을 取하여 그 氣味의 厚함을 얻어 溫經扶陽固表하게 된다. 따라서, 本方은 全的으로 扶陽하게 되면 熱을 돕게 되고, 清熱에 치우치면 陽氣가 더욱더 虛하게 되므로, 寒溫을 竝用하고 攻補를 兼해 立方하여¹⁰³⁾ 寒熱의 矛盾을 극복하는 調和의 妙를 다한 處方이라 하겠다.

96) 章虛谷, 前揭書, p.443.

97) 馬元臺·張隱庵 合註, 前揭書, p.36.

98) 柯琴, 前揭書, p.210.

99) 柯琴, 前揭書, p.221.

100) 柯琴, 前揭書, p.228.

101) 馬元臺·張隱庵 合註, 前揭書, p.38. “味厚則泄 薄則通 氣薄則發泄 厚則發熱”

102) 龐子光, 前揭書, P.102.

103) 湖北中醫學院主編, 前揭書, pp.119-120.

20. 梔子豉湯

梔子十四箇(擘) 香豉 四合(綿囊)

右二味 以水四升 先煮梔子得二升半 內豉 煮取一升半 去滓 分爲二服 溫進一服 得吐者 止後服.

○方藥, 煎湯法

梔子は 大部分 炒黑하여 使用하는데 本方에서는 단순히 쪼갠뿐 炒黑하라는 말이 없는 것을 보면 生用하라는 것이 分明하다. 만약, 炒黑하게 되면 清熱하는 效能이 減少하므로 本方에서는 그 效能이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¹⁰⁴⁾ 따라서, 梔子를 生用하여 清熱之力을 保存하는 대신 久煎하여 藥力을 緩하게 하여 胃氣를 保護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된다.¹⁰⁵⁾ 梔子の 生用과 煎湯法이 一攻一補의 調和를 이룬다 하겠다. 그리고, 以後의 梔子和 香豉가 들어가는 梔子甘草豉湯, 梔子生薑豉湯, 枳實梔子豉湯에서는 苦寒性降하는 梔子를 먼저 끓이고, 辛甘輕浮한 香豉를 나중에 넣어 그 氣가 先行하게 하여 上焦胸膈의 病處로 향하게 함으로써 浮沈하는 各藥味의 性質을 煎湯法에서 그 中을 획득하게 하였다.

21. 茵陳蒿湯

茵陳蒿 六兩 梔子 十四枚(擘) 大黃 二兩

上三味 以水一斗二升 先煮茵陳 減六升 內二味 煮取三升 去滓 分三服 小便當利 尿如皂莢汁狀 色正赤 一宿腹滿 黃從小便去也.

○煎湯法

本方에서 清熱燥濕하며, 利尿退黃의 主藥인

苦寒한 茵陳(六兩)을 먼저 끓여 藥性을 緩하게 함이 前例와 다르지 않다.

22. 白虎湯

知母 六兩 石膏 一斤(碎) 甘草 二兩(炙) 粳米 六合

上四味 以水一斗 煮米熟 湯成去滓 溫服一升 日三服.

○命名法

白虎는 西方의 金神으로 時로는 辰時에 該當하고, 季節로는 여름이 가고 金風이 올 때기에 該當된다. 虎는 金獸로 石膏·知母의 辛寒으로 肺金을 清肅하게 하여 陽明의 熱을 清解함을 따라 命名함이 自明하다.¹⁰⁶⁾

○方藥

石膏와 知母의 苦寒沈降이 偏重되어 있으므로 粳米와 甘草로 寒藥을 緩하게 하여 胃를 傷하게 하는 弊端을 막고,¹⁰⁷⁾ 形氣를 더하고 津血을 生하게 함으로써 中宮을 便安하게 한다.¹⁰⁸⁾

23. 大承氣湯

大黃 四兩(酒洗), 厚朴 半斤(炙 去皮), 枳實 五枚(炙), 芒硝 三合

上四味, 以水一斗, 先煮二物, 取五升, 去滓, 內大黃, 煮取二升, 去滓, 內芒硝, 更上火微, 一兩沸, 分溫再服, 得下, 餘勿服.

○方藥

本方은 瀉下의 峻劑로 ‘痞·滿·燥·實’이 目標다.¹⁰⁹⁾ 苦寒한 藥物이 大部分인데 甘草를

104) 廓子光, 前掲書, p.

105) 湖北中醫學院主編, 前掲書, p.67.

106) 章虛谷, 前掲書, p.417.

107) 陳維華, 藥對論,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84, p.63.

108) 柯琴, 前掲書, p.235.

109) 吳謙, 前掲書, p.135.

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煎湯法에서도 앞의 예와 같이 性猛한 大黃·芒硝를 먼저 끓이지도 않고, 白虎湯에서도 같이 粳米等屬을 加하지도 않았다. 이는 病勢가 重하고 急하므로 甘草의 甘緩함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病勢의 輕重緩急에 따라 緩和시키는 藥物의 進退가 있게 되는 것이다.

○修治

本方에서의 妙는 修治와 煎湯法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大黃의 修治에 따른 歸經을 보면 “酒浸 入太陽經 能引於至高之分, 酒洗 入陽明經, 生用 下行”¹¹⁰⁾ 이라고 하였고, 三承氣湯의 大黃修治에 따른 作用을 보면, “調胃承氣湯 大黃酒浸”¹¹¹⁾ 太陽陽明¹¹²⁾ 病在上 不當 下 故緩劑調和之也. 大承氣湯 大黃酒洗 洗輕於浸 至正陽陽明即急下之 是微升其走下之性 以治其中也. 小承氣湯 大黃不用酒製 少陽陽明 去正陽而逼太陰 其分爲下 故小承氣湯大黃不用酒製 少陽不宜下 故去芒草 又曰少與 曰微糖之勿令大泄下”¹¹³⁾라 하였고, 程知是 “謂胃承氣湯 大黃用酒浸 皆謂芒草之鹹寒, 大承氣湯 大黃用酒洗 而以酒製之, 小承氣湯 不用芒草 即亦不事酒浸洗”¹¹⁴⁾라 하여 各各의 處方目的에 맞게 修治해서 그 中을 구하였다.

○煎湯法

여기서는 先後를 나누어 治療하였는데, 柯

琴은 “生者 氣銳而先行, 熟者 氣純而和緩”이라 하였고, 따라서, 仲景先生이 枳實·厚朴을 먼저 넣고, 後에 大黃과 芒硝를 順次的으로 넣은 것은 芒草로 하여금 먼저 燥屎를 무르게 하고 (鹹寒軟堅), 大黃으로 계속해서 地道를 通하게 하며, 後에 枳實·厚朴의 純緩한 氣로 痞滿을 除하기 위해서이다.¹¹⁵⁾ 이는 앞의 예처럼 먼저 特定藥物을 끓인 後에 나머지 藥物을 끓이는 단순한 構造와는 달리 先中後의 3段階로 煎湯法을 나누어 病勢의 急함에 效果的으로 對應하였다.¹¹⁶⁾

24. 調胃承氣湯

芒硝 半升 甘草(炙) 大黃 四兩(去皮 清酒洗) 上三味 以水三升 煮取一升 去滓 內芒硝 更煮一升沸 頓服.

○命名法

本方에서는 大承氣湯에서와 같이 氣藥인 枳實·厚朴을 使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承氣’라고 命名한 것은 ‘調胃’ 역시 ‘承氣’와 다르지 않음을 取한 것이다. 이는 ‘調胃’하면 諸氣가 모두 純하여지는 까닭에 있다. 靈樞·平人筋谷篇에 말하기를 “平人胃滿即腸虛 腸滿即胃虛 更虛更滿 故氣得上下.”라 하였는데 지금 氣의 不承은 胃家の 實熱로 인함이므로 本方의 一攻一補하는 調胃의 略法을 使用하는

110) 汪昂, 前揭書, p.101.

黃度淵, 前揭書, p.187.

111) 醫方集解에서의 大黃修治의 說明은 아주 合理的으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醫方集解를 除外하고는 本論文에서 引用한 諸書에는 調胃承氣湯의 ‘大黃酒浸’의 文句가 發見되지 않았고, 『康平傷寒論 p.39』에서도 ‘清酒洗’라고 하여 醫方集解의 酒浸’과는 다르게 記述하고 있다. 따라서, 이 問題는 좀더 研究해 보아야 할 것이다.

112) 汪昂, 前揭書, p.101.

“入太陽門 大黃註曰 酒浸 湯后曰 少少溫服 日當和胃氣 又治不吐不下 心煩者, 及發汗不解 蒸蒸 發熱者 吐後 腹脹滿者 是太陽陽明去表未遠 其病在上 不當 下 故緩劑調和之也.”

113) 汪昂, 前揭書, p.101.

114) 吳謙, 前揭書, p.136.

115) 柯琴, 前揭書, P.237.

116) 成百曉 譯註, 前揭書, p.63. “君子之中庸也 君子而時中”

것이다.¹¹⁷⁾

○服藥法

本方에서는 治病함에 있어 그 勢의 強弱을 方藥에서가 아니라 服藥法에서 調節하고 있다.

1) 少少溫服之

‘少少溫服’은 藥勢의 銳利함을 取한 것이 아니라, 藥味가 中焦에 머무르게 하여 胃腑를 濡潤하게 함으로 津液을 保存하게 하는데 그 妙가 있다.¹¹⁸⁾ 太陽病 29條의 “傷寒, 脈浮, 自汗出, 小便數, 心煩, 微惡寒, 脚攣急. 反與桂枝湯欲攻其表, 此誤也. 得之便厥, 咽中乾, 煩燥吐逆者, 作甘草乾薑湯與之, 以復其陽; 若厥愈足溫者, 更作芍藥甘草湯與之, 其脚即伸; 若胃氣不和, 譫語者, 少與調胃承氣湯; 若重發汗, 復加燒針者, 四逆湯主之.”에서 溫藥으로 陽氣가 回復한 後에 胃熱 譫語에 이르렀을때, 本法으로 胃氣를 調和하고 潮熱을 治療한다.¹¹⁹⁾

2) 溫鈍服之

陽明燥實內結로 腑氣가 不通한 境遇에 本法을 利用하여 藥力을 集中하게 함으로써 瀉熱和胃 潤燥軟堅에 이르게 한다.¹²⁰⁾

25. 麻仁丸

麻子仁 二升 芍藥 半斤 枳實 半斤(炙) 大黃 一升(去皮) 厚朴 一斤(炙 去皮) 杏仁 半斤(去皮尖 熬 別作脂)

上六味, 爲末, 煉蜜爲丸, 桐子大, 飲服十九. 日三服, 漸加以和爲度.

○方藥

本方은 承氣湯類와 相反되는 處方으로 承

氣湯이 陽盛한 實證이라면 本方은 陰虧한 虛證에 屬한다. 하지만, 熱結도 兼하고 있으므로 大黃·枳實·厚朴의 承氣之類로 胃熱을 治療하고, 麻仁·杏仁·芍藥으로 脾陰을 滋潤한다.¹²¹⁾

○劑法

藥劑型은 아래와 같이 보통 3가지로 나눈다.

1) 散: 散者 散也 去急病用之 細末也. 不循經絡 止去膈上病 及臟腑之積氣

①氣味厚者 白湯調下 ②氣味薄者 煎之和渣服

2) 丸: 丸者 緩也 不能速去之 取徐緩而治之之意也

去下部之疾 其丸極大 而光且圓 治中焦者次之 治上焦者極小

3) 湯: 湯也 去久病用之¹²²⁾

따라서, 本方 中의 攻補의 矛盾은 病이 太陰에 있어 급히 湯滌하여 效果를 얻음이 不可하므로, 丸劑로 久服하여 緩補 緩攻하게 하여 그 中을 取하였다.¹²³⁾

26. 瓜蒂散

瓜蒂 一分(熬黃) 赤小豆 一分

上二味 各別搗碎 爲散已 合治之 取一錢之 以香豉一合 用熱湯七合 煮作稀糜 去滓 取汁和散 溫頓服之 不吐者 少少加得快吐乃止 諸亡血家 不可與瓜蒂散.

○服藥法

本方의 瓜蒂는 味가 極苦하고 性은 升하여 催吐하게 하는데, 輕清宣泄하는 香豉로 이를

117) 柯琴, 前揭書, p.238.

118) 柯琴, 前揭書, p.238.

119) 湖北中醫學院主編, 前揭書, p.159.

120) 湖北中醫學院主編, 前揭書, p.160.

121) 尤在涇, 前揭書, p.118.

122) 許液, 東醫寶鑑·湯液編, 大星文化社, 1990, pp.37-38.

123) 柯琴, 前揭書, p.246.

담고, 赤小豆의 酸甘性平하여 開發陳腐之力으로 胃氣를 保護하며, 快吐를 도와 正氣를 傷하지 않게 한다.¹²⁴⁾ 그리고, 服藥時에 稀粥을 먹어 穀氣를 빌어 또한 胃氣를 保護하니, ‘瓜蒂·香豉: 赤小豆·稀粥’이 ‘1:1’로 均衡을 이루어 中에 이른다.¹²⁵⁾

27. 小柴胡湯

柴胡 半斤 黃柏 三兩 人蔘 三兩 半夏 半斤 (洗) 甘草(炙) 生薑 各 三兩(切) 大棗 十二枚(擘)

上七味 以水 一斗 二升 煮取 六升 去滓 再煮取三升 溫服一升 日三服.

○方藥

桂枝湯은 太陽의 和解劑로서 全的으로 營衛를 調和하게 하여 太陽의 主方이 되고, 小柴胡湯은 少陽의 和解劑로서 全的으로 表裏를 調和하게 하니 少陽의 主方이 된다.¹²⁶⁾ 小柴胡湯의 主藥인 柴胡의 方解를 보면 氣質이 輕清하므로 升浮하여 半表의 陰陽을 調達하게 하고, 苦平은 降泄하여 半裏의 鬱滯를 疏解하게 함으로 ‘平調陰陽’의 主藥이 된다.¹²⁷⁾ 黃芩의 苦寒性降은 柴胡의 降泄을 돕고, 半夏·生薑의 辛溫性升은 柴胡의 升浮를 돕는다. 人蔘·甘草·大棗는 扶正하여 裏腑가 邪氣를 感受하지 않게 하여 和에 이르게 한다.¹²⁸⁾

○煎湯法

本方에서는 麻黃과 같이 升浮하는 性質을

가져 病人으로 하여금 心煩을 일으키게 할 것을 두려워하여 거품은 濁氣로 調和를 方解할 것을 두려워하여 除去하고, 諸藥의 融和를 위해 再煎하여 藥性을 和緩하게 한다.¹²⁹⁾

28. 大陷胸湯

大黃 六兩(去皮) 芒硝 一升 甘遂 一錢

上三味, 以水六升, 先煮大黃, 取二升, 去滓, 內芒硝, 煮一兩沸, 內甘遂末, 溫服一升, 得快利, 止後服.

○煎湯法

本方의 藥味는 모두 峻猛한데 大黃을 먼저 끓이고 後에 나머지 藥物을 넣는 것은, 病處가 上焦胸膈部位로 마땅히 緩하게 해야하므로, 大黃을 오래 끓여 서서히 行하게 하기 위함이다.¹³⁰⁾ 그리고, 最後에 甘遂末을 넣고 거품은 除去하지 않는데, 만약 거품을 除去하게 되면 逐水의 效力이 藥하게 되기 때문이다.¹³¹⁾ 그리고, 辛苦寒하여 逐水破結하고 水中之熱을 降泄하게 하는 本方의 主藥인 甘遂를 最後에 넣어 그 氣가 가장 先行하게 한다. 따라서, 本方에서는 生과 熟으로 藥味의 緩急을 調節하여 治方目的을 이루도록 圖謀하였다 하겠다.

29. 小陷胸湯

黃連 一兩 半夏 半升(洗) 栝實 一枚(大者)

上三味 以水六升 先煮 栝實 取三升 去滓 內諸藥 煮取二升 去滓 分溫三服.

124) 湖北中醫學院主編, 前揭書, p.142.

125) 柯琴, 前揭書, pp.233-234.

126) 章虛谷, 前揭書, pp.435-436.

127) 陳維華, 前揭書, p.166.

128) 柯琴, 前揭書, p.240.

129) 章虛谷, 前揭書, p.435.

130) 尤在涇, 前揭書, p.49.

131) 湖北中醫學院主編, 前揭書, p.108.

○煎湯法

本證의 病位는 心下이므로 ‘瀉心’의 意味를 지닌 黃連과 半夏를 나중에 넣어 먼저 그 氣가 直達하여 作用케 하고(生者 氣銳而先行), 이미 끓인 栝藹仁의 甘寒으로 黃連의 清熱과 半夏의 滌痰을 持續的으로 도와(熟者 氣鈍而和緩), 痰과 熱이 互結한 것을 潤下케 한다고 여겨진다.

30. 大陷胸丸

大黃 半斤 葶藶子 半斤(熬) 芒硝 半斤 杏仁 半斤(去皮尖熬黑)

上四味 搗篩二味 內杏仁芒硝 合研如脂 和散取如彈丸一枚 別搗甘遂末一錢匕 白蜜二合 水二升 煮取一升 溫頓服之 一宿乃下 如不下更服 取下爲效 禁如藥法.

○劑法

大陷胸湯과 比較해 볼 때, 劑法에서 本方은 丸으로 裏의 臟腑를 和緩하게 하여 氣가 속히 下行하지 않게 한다. 즉, 湯滌의 體와 和緩의 用을 가졌다고 하겠다.¹³²⁾

○服藥法

藥을 끓일 때 생긴 찌꺼기와 함께 服用을 하는데, 이것 또한 峻藥의 ‘緩用之法’에 屬한다고 한다.¹³³⁾

31. 三物白散

桔梗 三分 巴豆 一分(去皮心熬黑研如脂¹³⁴⁾) 貝母 三分

上三味爲散 內巴豆更於臼中杵之 以白飲和服 強人半錢匕 羸者減之 病在膈上必吐 在膈下必利 不利 進熱粥一杯 利過不止 進冷粥一杯.

○服藥法

本方은 물로 服用하지 않고 米飲과 함께 服用한다. 이는 草木은 各各 그 性의 偏長이 있으나, 穀氣(稼穡作甘)은 中和의 味로 사람의 精神血氣가 모두 이로써 生하므로 穀氣를 빌어 胃를 保護할 뿐만 아니라 胃에 오래 머무르게 하여 속히 下行하지 못하게 한다.¹³⁵⁾ 本方의 巴豆는 그 性이 熱하므로 得熱하면 行하고, 得寒하면 멈춘다. 따라서, 本方을 服用하고도 不利할 境遇는 熱粥을 마시고, 利不止의 境遇에는 冷粥을 마셔 完全을 기한다.

32. 十棗湯

芫花熬 甘遂 大戟

上三味等分 各別搗爲散 以水一升半 先煮大棗肥者十枚 取八合 去滓 內藥末 強入服一錢 羸人者 服半錢 溫服之. 若下少 病不除者 明日更服可半錢 得快下利後 糜粥自養.

○命名法, 方藥

앞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卦全體로서 吉인 卦, 凶인 卦가 있음은 물론이지만, 설사 凶卦라도 爻辭를 檢討해 보면, 中爻에 屬하는 것의 辭에는 흔히 吉이라든가 하는 말이 있다. 이는 사람이 어떠한 境遇에 있어서도 中道를 移行하면 禍를 避하고 혹은 吉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가리킨다고 하였다.¹³⁶⁾ 그러면, 方藥에 있어

132) 尤在涇, 前揭書, p.50.

133) 尤在涇, 前揭書, p.50.

134) 楊東喜 編著, 本草備要解釋, 國興出版社, 中華民國 74年, pp.395-396.

“王好古曰 去心皮膜油生用 爲急治水穀道路之劑 妙去煙令紫黑用 爲緩治消堅磨積之劑. 李時珍曰 … 不去膜即傷胃 不去心即作嘔”

135) 柯琴, 前揭書, p.246.

136) 가노나오키 著·吳二煥 譯, 前揭書, p.95.

凶은 무엇인가? 이는 藥味が 峻猛하여 治病 하되 傷正에 이르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中爻에 屬하는 吉은 앞의 여러 處方과 같이 修治에서, 煎湯法에서, 혹은 劑法·服藥法에서 그 性을 緩하게 하여 禍를 避하고 補正祛邪 하여 治病에 이르는 것이라 하겠다. 本方에서는 峻猛한 三味の 粉末을, 大棗를 煎湯한 것으로 服用하여 峻毒을 緩하게 하고 脾胃를 保護하고 있다. 그리고, 이 意味를 重視하여 命名에 까지 이르렀고, 數에 있어서도 完全數인 ‘十’¹³⁷⁾¹³⁸⁾을 使用하여 ‘尊中’¹³⁹⁾에 萬全을 기한 處方이라고 하겠다.

○服用法

緩和·甘遂·大戟을 散으로하여 十棗湯으로 調服하는데, 이때 瀉下作用이 더 顯著하다고 한다. 그리고, 平旦服 즉, 空腹時에 服用을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湯液의 藥力이 遲滯됨이 없이 곧바로 腸에 到達하게 하기 위함이며, 이에 따라 胃에 머무는 時間이 食後 服用時보다 적다. 따라서, 胃에 刺戟을 적게 주므로 藥味が 高약한데 따른 嘔吐症狀를 避한다고 하였다. 方藥과 服藥法에서 一峻中一緩하고, 一緩中一峻하여 中을 얻음을 알 수 있다.¹⁴⁰⁾

33. 乾薑黃芩黃連人蔘湯

乾薑 黃連 黃芩 人蔘 各三兩

上四味, 以水六升, 煮取二升, 去滓, 分溫再服.

○方藥

本方은 寒邪는 中焦에, 客熱은 上焦에 머물러 陰陽이 離隔되어 下利와 嘔吐를 同伴하는데 利用한다. 따라서, 處方에서도 黃芩·黃連의 苦寒과 乾薑·人蔘의 辛甘溫이 各各 3兩으로 ‘1:1’의 均衡을 이루며 治病에 이르게 한다.¹⁴¹⁾

34. 理中湯

人蔘 乾薑 甘草(炙) 白朮 各三兩

上四味 搗節 蜜和爲丸 如鷄子黃許大 以沸湯數合 和一丸 研碎溫服之. 日三服, 夜一服. 腹中未熟 益至四五丸 然不及湯 湯法以四物依兩數切 用水八升 煮取三升 去滓 溫服一升 日三服.

○命名法

命名에 있어서도 다른 處方名처럼 藥名은 使用하지 않고, ‘建中湯’과 같이 ‘理中’이라 하여 中의 意味를 강조 하였다.

○方藥

本方은 脾胃虛寒으로 인한 升降悖易에 使用하여 脾陽을 도와 健運에 이르게 한다. 中焦脾胃는 升降의 軸으로 脾胃가 失調하게 되면 升降뿐만 아니라 左右에도 影響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人體에 있어 病變은 上下左右에

137)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東方文化, 1988, p.203.

“10은 中間의으로 上下 前後의 그 作用 變化上 調和의 役に 該當한다.”

138) 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 행림출판, 1989, p.149.

“... <十>字의 뜻은 統一의 始初, 즉 未土의 象인즉 ...”

139) 成百曉 集註, 大學·中庸集註, 傳統文化研究會, 1992, p.59.

“中者 不偏不倚無過不及之名 庸 平常也”

周易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中道에 合하는 것을 가장 이로운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任意로 規定한 것이다.

140) 郭子光, 前揭書, pp.247-248.

141) 柯琴, 前揭書, p.229.

多様하게 나타나게 되며, 加減 또한 多様하게 된다. 小建中湯의 예를 통해 살펴 볼 때, 太陽¹⁴²⁾에서도, 太陰에서도 中焦脾胃는 治病의 核이 됨을 알 수 있으며, 仲景先生의 ‘建中’, ‘理中’의 處方은 易의 平衡觀을 具體化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東垣先生의 學說에도 影響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劑法

本方에서 治病함의 緩急은 方藥이나 煎湯法에서가 아니라 劑法에서 定하여 진다. 病勢가 緩하여 久服을 할 境遇에는 丸劑로, 病勢가 急하거나 丸劑를 使用하였으나 差度가 없는 사람의 境遇에는 湯劑로써 치우침이 없게 하였다.¹⁴³⁾

35. 桂枝人蔘湯

桂枝 四兩(別切), 甘草 四兩(炙), 白朮 三兩, 人蔘 三兩, 乾薑 三兩

上五味 以水九升 先煮四味 取五升 內桂 更煮取三升 去滓 溫服一升 日再夜一服.

○煎湯法

本方은 表證이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脾胃 虛寒을 兼할 때에 使用한다. 理中湯의 方藥 四味를 먼저 끓여 和中的 藥力을 너그럽게 하고, 後에 桂枝를 넣어 解肌의 藥力을 先行하게 하여 表裏雙解의 目的을 이룬다.¹⁴⁴⁾

36. 桃花湯

赤石脂 一斤(一半全用 一半節末) 乾薑 一兩 粳米 一升

上三味 以水七升 煮米令熟 去滓 內赤石脂末方寸匕 溫服七合 日三服 若一服愈 餘勿服

○方藥

赤石脂는 甘溫散澁 善緩脾胃 澁腸固脫의 效能을 가지고 있다. 桃花湯에서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一半全用(粗末)하여 溫主澁腸케 하고, 一半節末(細末)하여 藥汁을 使用, 衝服하여 直接 腸胃에 留滯케 하여 澁腸止瀉力을 높이게 된다.¹⁴⁵⁾

○命名法

赤石脂의 빛깔이 桃花와 같다고 하여 方名이 붙게 되었다고 하나, 柯琴은 “取春和之意 非從以色言”이라고 하여 그 象을 取한 것이라 하겠다.¹⁴⁶⁾¹⁴⁷⁾

37. 四逆湯

甘草 二兩(炙) 乾薑 一兩半 附子 一枚(生用, 去皮破八片) 乾薑 三兩

上三味 以水三升 煮取一升二合 去滓 分溫再服. 強入可大附子一枚 乾薑三兩.

○煎湯法, 服藥法

本方의 方藥은 모두 辛熱하다. 따라서, 久煎하여 藥力을 緩하게 해야함은 물론이고, 그

142) 理中湯은 太陰病 뿐만 아니라, 太陽病에서도 使用되고 있다.

143) 湖北中醫學院主編, 前揭書, p.309.

144) 柯琴, 前揭書, p.221.

145) 湖北中醫學院主編, 傷寒論講義, 湖南科學技術出版社, p.224.

146) 朴盛洙·廉泰煥 共著, 現代漢方講座, 행림출판, 1992, p.141.

147) 柯琴, 前揭書, p.129.

148) 馬元臺·張隱庵 合註, 前揭書, p.660.

中에서 生附子の 境遇는 반드시 久煎하여 藥毒을 解毒해야한다. 服藥時에는 冷服을 하는데 素問·至眞要大論의 ‘熱因寒用’¹⁴⁹⁾의 法을 이룬 것이라 하겠다.

38. 眞武湯 (玄武湯¹⁴⁹⁾)

茯苓 芍藥 生薑(切) 各三兩 白朮 二兩 附子一枚(炮 去皮 破八片)

上五味 以水八升 自取三升 去滓 溫分七升 日三服.

○命名法

玄武는 一龜一蛇로 水火를 부리는 北方의 神이다. 本方이 制火하고 利水하는 까닭에 象을 取하여 命名하였다.¹⁵⁰⁾

○方藥

茯苓四逆湯, 乾薑附子湯과 本方을 比較해 볼 때, 四逆湯을 中으로 하여 一緩一急의 方이라 할 수 있다. 茯苓四逆湯은 甘草의 甘味로써 調和하는데, 四逆湯에 比해 緩하다.¹⁵¹⁾ 乾薑附子湯은 生附子를 使用하였는데도 甘草를 使用하지 않았는데, 四逆湯과 比較해 볼 때 더욱 峻猛하다고 하겠고, 服藥法에서도 鈍服하여 급히 回陽시키려 하였다.¹⁵²⁾ 鈍服은 苦酒湯의 持續的으로 藥力이 作用하게 하기 위한 ‘少少含嚥’¹⁵³⁾과 比較해 볼 때, 服湯法의 一陰一陽이라 하겠다.

IV. 考 察

命名法에 있어 處方이 作用하는 機轉이나, 窮極의으로 意圖하는 바를 取象하여 命名하였다. 예를 들면, 桃花湯·靑龍湯·白虎湯·玄武湯이 여기에 屬한다. 建中湯이나 理中湯과 같이 後天의 本이 되며 升降·均衡·調和의 軸인 中焦脾胃에 對한 處方의 境遇나, 十棗湯과 같이 構成藥物이 至極히 峻猛하여 中氣의 損傷이 우려 될 때 특히, 藥物名을 使用하여 ‘某藥加某藥湯’이라 하지 않고 直接的으로 命名에 使用하여 中의 意味를 강조하였다.

劑法에 있어서는 病症에 가장 相當한 湯散丸의 3가지 類型을 適用하여 治病함에 있어 中에 이르게 하였다. 같은 藥物 構成과 分量을 가지더라도 理中湯과 理中丸으로 劑型을 달리하여 湯은 急症에 丸은 緩한 症狀에 使用하였다 특히, 大陷胸丸의 藥物은 峻猛하다. 劑型에 있어 ‘丸’으로 하여 ‘體峻用純’의 中을 이루었다.

方藥에 있어서는 處方을 構成 할 때 藥物의 寒熱辛酸을 考慮하였으며, 分量에 있어서도 陰陽의 均衡을 이루게 하였다. 그리고, 構成된 藥物의 性味가 峻猛하지 않고 純하여 陰陽表裏의 調和를 目標로 한 境遇에는 그 方을 中으로 하여 혹은 寒한 혹은 熱한 藥物을 加하여 中에 比하여 陰陽의 處方을 이루게 하였다.

149) 김용옥, 너와 나의 韓醫學, 통나무, 1993, p.140.

宋代 校正醫書局을 거치지 않은 康平本에는 ‘眞武湯’이 ‘玄武湯’으로 되어있고, 이는 北方의 守護神이 玄武이며, ‘玄’을 ‘眞’으로 바꾼 것은 宋의 宣祖의 諱를 避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四逆湯(散)’으로 알고 있는 處方名도 ‘回逆湯(散)’으로 되어있다.

150) 汪昂, 前揭書, p.218.

151) 柯琴, 前揭書, p.251.

152) 湖北中醫學院主編, 前揭書, p.85.

153) 湖北中醫學院主編, 前揭書, p.264.

예를 들면 桂枝湯을 中心으로 桂枝加芍藥湯과 桂枝加附子湯이 있다.

苦寒한 藥味가 偏重된어 中氣의 損傷이 염려될 境遇에는 甘溫한 藥物이나 稼穡作甘의 粳米를 使用하여 ‘一攻一補’하여 中氣의 損傷을 保護하였다. 營衛의 不和에 있어서는 發散表邪로 인한 過汗을 念慮하여 酸寒한 芍藥을 가하거나, 加減方의 母方에서 發散藥의 分量을 줄여 一散中 一收로 過汗을 豫防하여 中에 이르게 하였다. 桂枝湯과 桂枝加葛根湯이 이에 該當한다.

承氣湯類에서는 藥性이 모두 苦寒峻猛한데도 甘草·大棗 等屬을 쓰지 않고, 大黃을 酒洗와 酒浸하여 一下로 인한 中氣의 損傷을 考慮하여 一升하게 하여 ‘一下一升’으로 中에 이르게 하였다.

煎湯法에 있어서 藥物의 性質이 峻猛하고 혹은 藥量도 많을 境遇 久煎(先煎)하여 藥力을 純하게 하였다. 그리고, 煎湯 할 때 先後 혹은 大承氣湯과 같이 先中後 3段階의 時間的 差異를 두어 藥力이 속히 作用하게 하든지 혹은 藥力이 純하게 持續的으로 作用하게 하여 中에 이르게 하였다. 瀉心湯類에서는 苦寒한 藥物을 잠시동안 끓는 물에 담갔다가 꺼내어 그 氣의 清薄함 만을 取하여 ‘一峻一純’, ‘體峻用純’의 中에 이르게 하였다.

服藥法은 煎湯法과 함께 比較해 볼 필요가 있는데, 煎湯法에서 峻猛의 藥性을 緩하게 한 境遇 服藥法에서 一日二服·三服이 아니라, 反日服盡 等 服用時間을 短縮하여 服用量을 늘림으로써 ‘一緩一急’의 中을 이루게 하였다. 麻黃連翹赤小豆湯이 여기에 該當된다. 그리고, 治病함에 있어 構成된 藥物의 強弱에 重點을 두어 緩急을 調節하는 境遇도 있지만, 服藥法에서 緩急을 調節하는 境遇도 있었다. 調胃承氣湯의 境遇 같은 藥物構成과 分量을 갖는다 하더라도 病症의 強弱에 따라 ‘少少

溫服’과 ‘溫鈍服之’의 服藥法으로 緩急을 調節하였다.

V. 結 論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傷寒論의 學術思想의 淵源이 內經은 물론이고, 周易의 傳統을 繼承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傷寒方에서 周易과 醫學의 相通點 中의 하나인 平衡觀(均衡과 調和)의 觀點이 어떻게 具體的으로 適用되었는가를 살펴본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命名함에 있어 周易과의 相通點은 周易의 取象과 같은 脈絡에서 方全體의 意味를 取象하여 命名함을 볼 수 있었다.

2. 均衡과 調和를 重要時하여 均衡과 調和의 核心인 中焦脾胃에 關聯된 境遇에는 ‘理中’, ‘建中’이라 하여 ‘中’의 意味를 더욱 강조하였다.

3. 劑法에 있어 湯散丸의 3가지 劑型을 利用하여 治病함에 있어 緩急을 調節하여 治病하면서도 正氣의 損傷을 입지않게 調和를 維持하였다.

4. 方藥에 있어서는 發散과 收斂·攻下와 補中·催吐時에 護中의 藥劑를 兼하여 使用하여, 治病하되 傷正의 弊害가 없게 調和의 妙를 다하였다.

5. 특히, 表裏陰陽의 調節之劑의 境遇에는 該當方에 寒熱辛酸의 陰陽에 該當하는 藥物을 構成하여 陰陽의 偏盛을 治療하여, 數方을 살펴 볼 때 調節之劑가 中心이 됨을 알 수 있었다.

6. 修治에서는 大黃의 ‘一降’에 酒의 ‘一升’을 加하여 ‘一升一降’의 均衡을 圖謀하였다.

7. 煎湯法에서는 構成藥物에 時間的인 順次를 두어 끓여 緩急을 調節하고, ‘體峻用純’의 陰陽調和에 이르게 하였다.

8. 服用法에서는 煎湯法에서 緩하게 한 境遇에는 服用時間을 短縮하고 量을 늘려 ‘一緩一急’의 調和를 圖謀하였다.

위의 結果를 살펴 볼 때, 方藥·煎湯·服用·修治에서의 몇 段階에 걸친 防禦機轉은 결국에는 人體에 凶인 病邪가 入하였을때 다시금 吉에 나아가는데 正氣를, 특히 中氣를 傷하지 않고 ‘中正’(保正祛邪)에 나아가기 위해 細心히 配慮된 仲景先生의 妙法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그 中心에는 ‘平衡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1. 廓子光 外：傷寒論湯證新編，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3.
2. 湖北中醫學院主編：傷寒論講義，湖南科學技術出版社，1986.
3. 柯琴：傷寒來蘇集，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6.
4. 吳謙：醫宗金鑑(上)，人民衛生出版社，1982.
5. 尤在涇：傷寒貫珠集，上海科學技術出版社，1978.
6. 東漢 張仲景 著：康平傷寒論，湖南科學技術出版社，1988.
7. 張仲景：仲景全書，大星文化社，1989.
8. 章虛谷：醫門棒喝(下)，大星文化社，1989.
9. 周石卿：傷寒論百題解，福建科學技術出版社，1985.
10. 田合祿：中醫外感三部六經說，山西科學教育出版社，1990.
11. 閻洪臣 主編：傷寒論析要，吉林人民出版社，1984.
12. 重慶市科學技術協會編輯：傷寒論手冊，科學技術文獻出版社重慶分社，1984.
13. 程昭 主編：傷寒心悟，學苑出版社，1989.
14. 王琦 主編：傷寒論研究，廣東高等教育出版社，1988.
15. 鄒學熹：醫易會通，四川科學技術出版社，1992.
16. 李浚川·肅漢明 主編：醫易會通精義，人民衛生出版社，1991.
17. 馬元臺·張隱庵 合註：黃帝內經 素問靈樞合編，台聯國風出版社，中華民國70年.
18. 愼賢揆：張仲景의 生涯와 關聯된 諸問題에 對한 考察，大田大學校大學院，1992.
19. 朴贊國：仲景生涯와 後世傷寒家의 六經辨證에 關한 研究，慶熙大學校大學院，1981.
20. 成百曉 譯註：大學·中庸集註，傳統文化研究會，1992.
21. 老子：老子道德經，汎友社，1992.
22. 가노나오끼 著·吳二煥 譯：中國哲學史，乙酉文化社，1989.
23. 楊力：周易과 中國醫學(上, 下)，法仁文化社，1995.
24. 金敬琢：周易，明文堂，1995.
25. 陳維華 外：藥對論，安徽科學技術出版社，1984.
26. 楊東喜 編著：本草備要解析，國興出版社，中華民國74年.
27. 汪昂：醫方集解，大星文化社，1990.
28. 康秉秀 外：編著本草學，永林社，1988.
29. 黃度淵：方藥合編，南山堂，1989.
30. 孫思邈：備急千金要方，大星文化社，1988.
31. 李東垣：東垣十種醫書 中 脾胃論 湯液本草，大星文化社 影印，1991.
32. 李梴：編註醫學入門，大星文化社，1986.
33. 許浚：東醫寶鑑，大星文化社，1990.
34. 王新華 編著：中醫歷代醫論選，江蘇科學技術出版社，1980.
35. 朴盛洙·廉泰煥 共著：現代漢方講座，행림출판사，1992.

36. 洪元植 編著：中國醫學史，東洋醫學研究院，1984.
37. 韓圭性：易學原理講話，東方文化，1988.
38. 韓東錫：宇宙變化의 原理，행림출판，1989.
39. 金용옥：너와 나의 韓醫學，통나무，1993.